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결핵예방교육 실시

협회는 5월 한 달간,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함께 방문취업을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한 중국 동포들을 대상으로 '결핵예방교육'을 실시했다.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현재 150만 명을 상회하여 전체 인구의 3%에 달하고 있으며, 지난해 신고된 외국인 결핵환자는 1,510명으로 2001년에 비해 열 배 가량 급증해 있는 상황이다. 이는 같은 기간 외국인 체류자 수의 변화와 비교하여 훨씬 빠른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이들에 대한 결핵관리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한편, 취업을 목적으로 국내에 방문한 외국 동포 257,986명(법무부통계자료 2014.04.30. H-2비자 기준) 가운데 중국 동포는 244,309명에 이른다. 이들은 보건의료시스템으로부터 소외된 채 집단으로 생활하는 경우가 많아 결핵에 대한 주의와 관심이 더욱 필요하다. 따라서 협회 STOP-TB 운동본부는 한국산업인력공단 경기지사를 통해 취업 교육을 받는 중국 동포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결핵의 심각성과 결핵 예방을 위한 행동요령, 결핵 발견 시 대처요령 등을 알리기 위한 결핵예방교육을 실시하였다. 교육은 매주 한국산업인력공단 경기지사의 수원교육장과 안산교육장에서 각각 진행되었으며, 총 15회에 걸쳐 900여 명의 교육생들이 참가하였다. 특히 본 교육을 위해 협회의 직원들이 직접 결핵 예방 강사로 활약하였으며, 지난해 말 결핵고위험군 대상 결핵 예방 교육을 위해 개발된 외국인용 교육 자료를 이용하여 교육생들이 한국에서 거주하면서 결핵으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하기 위한 정보들을 전달했다. 협회 STOP-TB 운동본부는 지난해부터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지구촌사랑나눔, 한국외국인력지원센터 등 이주민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함께 이주민 결핵 예방 및 퇴치 사업을 펼쳐오고 있다. 지난 달에는 이주민 공동체의 결핵 안전을 지원하기 위해 12개 국가의 외국인 결핵 예방 시민홍보대사를 위촉하여 각 국가 공동체에서의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장려하고 있다.

[서울지부] 휴일 외국인검진

서울지부는 6월 14일, 영등포 글로벌 빌리지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흉부엑스선 검진을 실시했다. 이어 15일에는 관악구에 위치한 중국 동포사랑의 집을 방문하여 검진을 실시하였으며, 검진에는 63명이 참여했다.

[전북지부] 원광보건대 산학협동협약 체결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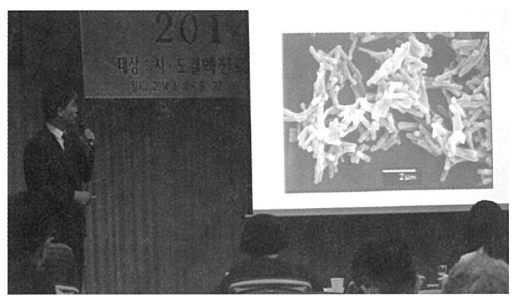
전북지부 정계용 본부장은 6월 10일, 원광보건대 임상병리과 학과장실을 방문, 협회와 원광보건대 간 업무 협조를 위한 협약식을 체결하였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원광보건대 진복희, 김유현, 권필승, 안용태, 이지숙 교수가 참석했다.

[결핵연구원] 상반기 민간·공공기관 결핵도말검사 교육

결핵연구원은 5월 21일, 대한결핵협회 본부 강당 및 임상검사센터에서 결핵균 검사를 수행하는 민간기관 검사실 관련 실무자를 대상으로 결핵균 검사에 관한 현황 소개, 도말검경 이론 및 실습, 검사실 안전사항 교육, 액체 배양 소개 등을 내용으로 교육을 실시하였다. 한편, 5월 28일에는 질병관리본부 국립의과학지식센터 2층 회의실 및 대한결핵협회 결핵연구원에서 결핵균 검사를 수행하는 공공기관 검사실 관련 실무자를 대상으로 결핵균 검사에 관한 현황 소개, 항산균 도말검사 이론교육, 도말검경실습 등을 실시했다.

[결핵연구원] 2014 결핵관리교육 실시

결핵연구원은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한국교육단체총연합회 2층 단재홀에서 보건소 진료의사, 공중보건의사, 군의관, 교정시설 진료의사 등을 대상으로 4차례에 걸쳐 교육을 실시했다.
공공 및 민간의료기관의 결핵 진료 의사에 결핵 전문지식, 결핵진단 및 치료에 대한 최신 정보 제공하는 이번 교육을 통해 결핵 진단 및 치료 성공률이 향상됨은 물론 국가결핵관리 강화 및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지부] 전통시장 무료검진 및 홍보캠페인

경기지부는 경기도청, 경기도 관내 4개 보건소와 함께 6월 19일 수원시 팔달구에 위치한 팔달문 전통시장을 방문하여 상가 상인 및 이용객을 대상으로 흉부엑스선, 골밀도, 혈압, 혈당 등 기초건강검사와 무료 건강 상담, 결핵예방 홍보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하루 205명의 상인 및 이용객이 흉부엑스선 검진에 참여했다.

[부산지부] 지하철 역사 결핵예방 홍보물 게시

부산지부는 부산지하철 자갈치, 남포동, 범일동, 교대, 부산대지하철역 등 자동발매기 상단에 결핵 홍보와 복십자의원 안내를 위한 광고를 게시했다. 경성대부경대 지하철 역사 내에는 복십자의원을 안내하는 판넬을 게시하여 복십자의원 이용객들의 편의를 돕고 있다. 이와 함께 부산지부는 시내버스 내부 스티커광고 등 생활 밀착 광고를 통해 복십자의원 및 결핵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